

動向分析

經濟一般

● 경기침체 지속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 기록

1997년 3/4분기 중 국내총생산은 민간소비와 고정투자 등 내수가 계속 부진하였으나 수출이 중화학공업제품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6.3% 성장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이는 전년동기의 성장률보다는 다소 낮지만 대기업의 연쇄부도 사태 등 경기불황을 감안한다면 비교적 높은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국내수요의 부진과 임금상승세 둔화 등으로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4.0% 높아져 점차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출호조로 제조업 8%대의 성장세 유지

경기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농림어업과 건설업이 부진하였으나, 제조업은 수출호조에 힘입어 신장세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경공업은 섬유, 의복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부진세를 나타내 생산이 1.5% 감소하였으나 중화학공업은 전기·전자,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호조에 힘입어 생산이 10.9% 늘었다. 그 결과 제조업 전체적으로는 전년동기대비 8.1% 성장하였다.

건설업은 사회간접자본 건설이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공장 등 건물건설이 부진하여 2.9% 성장에 그침으로써 1997년 들어 낮은 성장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등이 다소 부진하였으나 통신업, 운수업 등이 호조를 보여 전체적으로 7.2% 성장하였다. 특히 통신업(26.9%)은 이동전화, 무선호출 등 이동통신부문이 계속 큰 폭으로 늘어나고 국제 및 시외전화의 이용량도 증가함에 따라 높은 신장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한편 금융·보험업의 경우 금융업에서 대기업 연쇄부도에 의한 금융자금 압박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이 보험료 수입에서 안정적인 증가를 보여 전체적으로는 7.3% 증가하였다.

〈표 1〉 주요 거시경제지표 동향

(단위 : %, 10억달러)

	1995	p 1996	p 1996		p 1997		
			3/4	4/4	1/4	2/4	3/4
국내총생산 (GDP)	8.9	7.1	6.6	7.2	5.5	6.4	6.3
산업							
제조업	10.8	7.4	7.0	8.4	5.7	7.6	8.1
건설업	8.6	6.7	7.5	3.7	-1.0	1.1	2.9
서비스업 ¹⁾	10.1	8.2	7.5	8.4	7.3	8.0	7.2
수요							
민간소비	8.3	6.9	6.2	6.5	4.4	4.9	5.0
고정투자	11.7	7.1	8.0	7.2	-1.2	-0.1	-4.7
물가							
소비자	4.5	5.0	5.2	4.8	4.7	4.0	4.0
생산자	4.7	2.7	2.3	3.5	3.7	3.8	2.6
교역							
경상수지	-8.9	-23.7	-7.5	-6.4	-7.8	-2.9	-2.2
무역수지	-4.7	-15.3	-5.5	-4.1	-5.4	-0.7	0.2
수출							
수출	125.1	129.7	29.6	35.5	29.7	35.6	34.5
수입	135.1	150.3	37.1	40.5	37.1	37.3	35.7

주 : 1)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수입세를 포함. 금융취속서비스는 공제.

2) 수출은 FOB, 수입은 CIF 가격이며 통관기준.

3) 생산활동 및 지출항목별 증가율은 1990년 불변가격 기준.

4) p는 잠정치임.

자료 : 한국은행, 『1997년 3/4분기 국내총생산(잠정)』, 1997. 11.

『주요 경제지표』, 1997. 10.

통계청, 『한국통계월보』, 각호.

● 내수부진으로 설비투자 증가율 17년만에 최저수준 기록

1997년 3/4분기 중 소비 및 투자동향을 살펴보면, 최종 소비지출은 전년동기대비 5.3% 신장되어 성장률이 전년동기에 비해 낮아졌다. 이 중 민간소비는 구조조정에 따른 임금상승세 둔화 및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전년동기의 증가율보다는 다소 낮아졌으나 정부소비는 지방정부의 기능확대 등으로 물건비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7.0% 증가하여 전년동기의 증

가을보다 다소 높아졌다.

고정투자는 경기침체의 지속에 따른 기업의 투자욕 저하로 전년동기대비 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극심한 내수부진으로 설비투자가 전년동기대비 13.0%나 감소하면서 증가율이 17년만에 최저수준을 보였다. 건설투자 역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물건설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2.1% 증가에 머물렀다.

● 수출증가율 확대, 수입증가율 둔화

1997년 3/4분기 중 국제수지 동향은 무역수지가 점차 개선됨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는 전년동기에 비해 크게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관기준으로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수출은 증가추세가 늘고 있는 반면, 수입은 증가추세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은 물량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29.0%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전기·전자,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이 크게 늘어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수입은 국내경기 침체로 인한 설비투자 부진으로 자본재 수입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5.4% 증가하였다.

● IMF 자금지원으로 경제환경이 크게 변화할 듯

올해 대기업의 연쇄부도와 환율의 급상승으로 금융위기가 본격화되자 정부는 IMF 자금을 지원을 요청하였다. IMF는 통상적으로 자금지원시 지원대상국의 거시경제 운용에 일정부분 개입을 하고 있어 이에 따른 거시경제 운영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무엇보다도 긴축적인 재정·금융정책으로 성장률이 하락하고 설비투자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또한 저성장 및 산업구조조정 가속화로 실업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환율급등으로 물가상승 요인이 높지만 정부의 긴축정책이 예상됨에 따라 물가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IMF가 우리나라의 국제수지적자 축소를 요청할 전망이어서 수입 축소 등을 통해 국제수지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